

## 한국조경수협회 2007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2007. 3. 16. 11:0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2007년 제2차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안건으로는 임원 및 고문추대건, 2007 예산안변경(안) 승인건, 회장선출시 대리투표제 폐지건, 기타 안건 등 이었으며 이날 이사회에는 43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님들께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55명의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또한 2007 예산안변경(안)은 다음이사회에서 검토기로 하였으며 정기총회 시 대리인투표제는 폐지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안)건과 “조경수”지 편집 운영위원회 규정(안)건이 결의 되었으며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계약건과 협회 40사 발간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임원 모두 동의 하였다.

# 충북조경수협회 선진지 견학 기행

## — 아침고요 수목원 —

우리 충북지부회원은 2007년 2월 21일 1박 2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왔다.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다 참석하진 못하고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의 전당에서 9시 30분에 집결하여 버스를 타고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이동했다  
 이동도중 버스안에서는 노래자랑이 있어서 가는 길을 더 흥겹게 했다.  
 2시간 후 아침고요 수목원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수목원을 견학했다



수목원에는 계절별, 주제별로 많은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어 볼거리가 아주 다양했다.  
 견학후 동해 속초로 이동하여 숙소인 하일라 콘도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회원 단합을 위한 밤을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기록 회원께서 참석한 모든 회원께 포도주를 증정하여 더욱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린 아침을 먹고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신흥사안에 많은 문화재를 관람하고 케이블 카를 타고 권금성으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다 보면 멀리 동해바다와 속초가 보이고 울산 바위등 기암괴석들이 눈에 들어온다



권금성 정상에서는 대청봉의 모습 중청과 소청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봉화대에서 바라본 설악의 기암절벽들은 참으로 멋진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전국조경수협회 지부장 친목을 위한 -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

경기남부지부장 박 종 철

한국조경수협회 임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싱가포르 여행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다녀왔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함 속에 전국 각지에 계신 임원분 들이 한 분, 두 분 도착하며 반가운 악수와 인사를 나누었다.

15시 40분 발 비행기에 올라 지는 태양을 뒤로 한 후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싱가포르의 야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 왔다.

창이 공항에 가까워 질수록 싱가포르의 야경은 마치 잘 정리된 MINI-WORLD처럼 보였다.

창이 빌리지 호텔에서 첫날을 보내고 호텔 뷔페

로 간단한 조식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의 조호 바루로 이동하였다.

말레이시아로 들어서자 싱가포르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였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외모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원주민 마을 아가씨의 훌륭한 한국 가요연주와 민속춤을 관람 후 술탄 왕궁 등 간단한 시내 관광을 하였다.

싱가폴로 귀환 후 머라이언 공원과 에스프레네이드를 관광했다.

머라이언 공원은 싱가포르 최고의 스탠포드 호텔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의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머라이언이란 상반신의 라이온,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오후에는 어렵게 방문허락을 받은 싱가포르 조경 산업 협회(LANDSCAPE INDUSTRY ASSOCIATION:이하 『LIA』라 칭함)를 방문해 싱가포르 조경의 역사와 전반적인 개요를 들을 수



있었다.

싱가폴 LIA는 1966년 싱가포르의 녹색화와 노동력 창출을 위해 국립공원청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다.

1990년대 이후 공사 및 관리를 모두 외주로 발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현재 LIA라는 협회 아래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연계되어 있어 상호, 협조,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 조경 발전을 위해 국가와 LIA가 조경교육기관 창설에 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 했다.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ORIENTATION을 마친



후 싱가포르 조경 CONTEST에 입상한 우수 조경물을 방문하였다.

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인지 싱가포르의 조경은 무척 단순하고 아기자기 했다.


일년동안 변하지 않는 따분함 때문일까 지목 밑이나 육교 밑에 붙여 놓은 고사리나 아이비 등이 이채로웠다.

우리의 조경이 살아 숨쉬는 기상과 움직임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에 각기 새로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의 조경은 너무도 조용하고 잔잔한 듯 했다.

관람을 마치며 LIA 관리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교류를 하자는 약속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 후 헤어졌다.

셋째날 아열대섬의 화려함이 물씬 풍겨나는 보타닉 가든에선 싱가포르의 다양한 식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6백종, 8천 마리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쥬롱 새 공원은 자연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해 가며 새를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새들의 쇼와 묘기에 잠깐 동안 동심의 세계로 돌아 갔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 조경수 재배 - 일석 삼조의 효과

진영조경건설(주) / 남 학 우

최근 사회의 조기 퇴직 현상으로, 한참 활동할 수 있는 50대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반면 불확실성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30여 년 넘게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동문 여러분에게 조경수목을 직접 재배하실 것을 추천하여 드리며, 이 경우 이익과 효과에 있어,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적절한 활동과 소일거리의 확보

농업, 임업, 목축업 등은 주인이 직접 현장에서 일꾼들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중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경수를 식재하고 기르는 것은 위의 일들에 비하면 그 노동량이 훨씬 적으며, 처음 2년 정도만 지나면 나무는 저절로 잘 자랍니다. 물론 적절한 시비(비료)와 농약살포, 풀 및 덩굴제거 등의 일이 따르나 이 정도의 노력과 보사림은 50-60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토지의 가치상승과 수목의 성장과 판매에 따른 이익실현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으로 토지를 이용한 생산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국가간 거래가 묘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대형 건설회사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 현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수형의 양호한 조경수목은 항상 그 수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처음 나무를 식재할 때 3-4m씩 떨어지게 간격을 넓게 심어 키우면 대부분의 수목이 10년 안에 상당히 크고 보기 좋게 자라게 됩니다.

조경수의 판매는 대개 立木 상태로 구입자가 굴취 작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크기가 작은 나무는 立木 가격이 낮고, 오랜 기간 원매자가 없는 경우, 밀식한 상태에서 크게 자란 수목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수목을 베어내야 하는데, 아까운 마음에 간벌을 늦추다 보면 上品 수목은 거의 없는 쓸모 없는 농장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조경수는 규격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가격은 거의 두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키 2m이상 직경2-5cm정도의 나무를 3-4m간격으로 심고 식재 시 유기질 퇴비를 주변에 많이 넣어주고,



초기 2-3년 가물때 몇 차례 급수를 하고, 일년에 두어 차례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 후에는 아주 가물이 심할 때만 급수하고, 벌레도 심한 경우에만 농약을 줍니다. 풀과 덩굴 제거를 일년에 한두 번 하고, 추가 비료도 한번 정도 주면,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 관리는 거의 없게 됩니다.

직경이 15cm 정도가 되면 비교적 쉽게 처분이 되고 가격은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때 1-2년에 걸쳐 대부분 팔고, 남은 것은 한쪽에 모아 가식한 후, 다시 새로이 나무를 식재합니다. 10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았을 때 식재 시 소요된 비용의 10배 정도, 중간 관리비용을 포함시켜도 5배 이상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투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타 산림수목이 우거진 야산의 경우 수종변경을 위해, 산림조합이나 木商들에게 의뢰하면 잘라낸 나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산주의 부담 없이 별채하여 줍니다. 그 후 수목식재, 굴취, 운반 등을 목적으로 관리도로(林道)를 개설하고 조경수를 심으면 토지의 사용가치가 애초의 경제성이 없는 임야에서 가치가 큰 조경농장으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게다가 산림벌채 시 조경수목으로 가치가 큰 수종(대표:소나무)이 있는 경우 잘라내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이식하거나 뿌리돌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몇 년 내에 상당히 고가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질적

인 토지의 형질을 받으로 바꾸고 본인이 주소를 농장이 있는 시, 군으로 이전한 후 읍, 면, 동의 농지 원부에 등재를 요청하면, 실제로 농지와 같은 대접을 받고, 비료도 매년 싸게 구입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관청에 신고, 허가 획득 등이 필요함)

### 3.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본인의 주소를 농장 소재의 시, 군이나 인접 시, 군으로 옮기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다음 매매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1억원 한도로 감면혜택을 줍니다. 즉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경수목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때 수목을 포함한 전체 매매가격을 정하고 난 뒤, 토지의 가격을 줄이고 수목의 가격을 올려 두 개의 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목의 가격이 워낙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도 감세효과가 있으며,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주장을 객관적으로 잘 하면 조경수목의 경우 이전비로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으며 토지금액도 일반농지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